

#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최석곤 회장 재선출, 곽규천 · 이범용 부회장에 선임



지난 3월 26일, 3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ESCO 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 및 2002년 사업계획 등 5개 안건이 처리되었다.

지난 3월 26일 서울팔레스호텔 라일락룸에서 2002년도 ESCO 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30여 회원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2001년 사업결산, 임원개선, 2002년도 사업계획 등 5개 안건이 처리되었고, 참석한 회원사들은 ESCO 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위상확립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최석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처럼 국내의 경제상황이 호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정부 또한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아울러 “ESCO 사업은 이제 연간 1천억원대의 규모로 성장한 에너지 절약부문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은만큼 협회에서는 ESCO 사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들이다.

## • 2001년 사업보고

회원사는 최근 가입한 한미설비, 아이콘트롤스사를 포함하여 정회원 32개사, 특별회원사 9개사로 확정되었고, 지난 해 ESCO 사업에서 회원사가 차지하는 실적비중도 80% 이상을 상회하였다. 또한 ESCO Mart 행사장에 ESCO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ESCO 사업 홍보를 수행하였고, 관계기관에의



① 최석곤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재추대되었다. 부회장은 ② 이범용 에너지솔루션즈 대표와 ③ 곽규천 금호전기 이사가 선임되었다. 그 아래는 ④이창순 감사와 ⑤김중수 사무국장.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ESCO 자금 금리인하, 적격심사기준 개정, ESCO 사업자금 증액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임원개선 및 정관변경

이번 총회에서는 최석근 삼성에버랜드(주) 상무이사가 임기 3년의 협회 회장직에 재선출되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아울러 금호전기(주) 광규천 이사와 에너지솔루션즈의 이범용 사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EnE시스템 유제인 사장과 화인테크 심규정 부사장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박윤규 이사(한국하니웰(주) 대표)는 연임되었다.

한편, 협회 기구 확충으로 인한 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라 사무국장과 직원만을 명시한 현행정관에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 2002년도 사업계획

협회는 ESCO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과 회원사 홍보에 2002년도 사업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ESCO사들의 정책자금 투자사업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협회 이관, 적격심사기준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최저 이익보장제로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ESCO자금 전담창구지정제 도입과 현재의 1종·2종으로 되어 있는 ESCO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조명·냉난방공조설비 등의 전문업종분야별 등록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정보나 제도·정책 및 입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협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언론 매체 등의 기회를 이용, 회원사의 사업현황, 신제품, 신기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회원사의 대고객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언론기관과 ESCO 사업 우수업체 공동시상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진단전문가 양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ESCO 사업관련 분쟁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내 분쟁자율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올해부터 협회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실적비례분담금, 임원사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실적비례분담금은 기존의 5/10,000에서 1/1,000로 인상되었고, 임원사 분담금은 회장사 200만원, 부회장사 50만원, 일반 임원사 50만원으로 인상돼 협회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㉔



왼쪽부터, 김석철 팀장(한국하니웰), 심규정 부사장(화인테크), 유제인 사장(EnE시스템), 소재욱 이사(비티아이), 엄철준 대리(한미설비)